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SEASON 21 2025.1-12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예술의전당 

협찬  한화생명

이 음악회는 예술의전당이 기획·제작하였습니다.
Seoul Arts Center Proudly Presents.



여성에게 딱 맞춘 보장보험 이제 보험도 맞춤 시대

가벼운 여성 질환과 여성만의 중증도
생애 주기가 다르니까 보험도 맞춤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한화생명 레이디H보장보험(무)

080.365.6363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 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91일부터로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년 이후 지급금의 50% 또는 25%(가입후 180일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한함)만 지급합니다. 본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특약은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갱신 중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10세(일부 특약의 경우 최대 40세, 최대 종신)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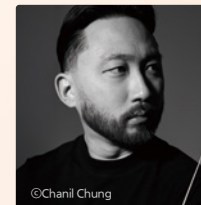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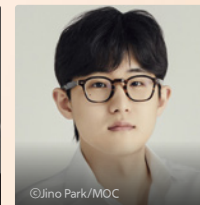
11시 콘서트

SEASON 21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정찬민



바이올린 임동민



피아노 가주연



해설 강석우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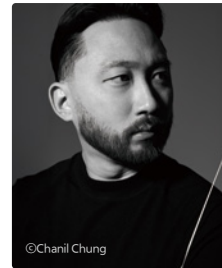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Thu. Jul. 10, 2025 at 11 A.M.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지휘 정찬민 | 바이올린 임동민 | 피아노 가주연
연주 한경arte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해설 강석우

뒤카 P. Dukas	마법사의 제자 L'Apprenti sorcier	
프로코피예프 S. Prokofiev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D장조 Op.19 Violin Concerto No.1 in D Major, Op.19 I. Andantino – Andante assai II. "Scherzo." Vivacissimo III. Moderato – Allegro moderato – Moderato – Più tranquillo	바이올린 임동민
휴식 Intermission		
라벨 M. Ravel	피아노 협주곡 G장조 M.83 Piano Concerto in G Major, M.83 I. Allegramente II. Adagio assai III. Presto	피아노 가주연
브리지 F. Bridge	바다 H.100 The Sea Suite, H.100 I. 바다 풍경(Seascape) : Allegro ben moderato II. 바다 거품(Seafoam) : Allegro vivo III. 달빛(Moonlight) : Adagio non troppo IV. 폭풍(Storm) : Allegro energico – Allegro moderato e largamente	

프로그램과 출연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programs and artists are subject to change.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전화와 디지털 기기 등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turn off your cell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before the concert begins.

ARTIST PROFILE



지휘 정찬민
Chanmin Chung, Conductor

지휘자 정찬민은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 트럼펫,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를 익히며 음악적 기초를 쌓았다. 이후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2011년 도독해 라이프치히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음악 및 연극대학 영재원에서 지휘와 오페라 코칭 과정을 수료하며 본격적인 지휘자로서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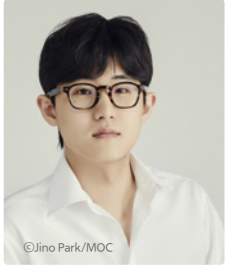
2013년, 그는 바이마르 프란츠 리스트 음악대학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오페라 코칭, 피아노를 전공하며 니콜라스 파스케(Nicolás Pasquet), 에카르트 비칙(Ekhardt Wycik), 군터 칼라트(Gunter Kahlert), 울리히 포겔(Ulrich Vogel), 다그마 브라운스(Dagmar Brauns) 교수 등을 사사했다. 학사 과정을 마친 후 2017년부터 동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으며, 2019년에는 라이프치히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음악 및 연극대학에서 마티아스 포렘니(Matthias Foremny)의 지도하에 오케스트라 지휘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그는 스페인 국립 유스 오케스트라(Joven Orquesta Nacional de España)에서 로렌조 비오티와 협업하며 지휘자로서의 역량을 다졌고, 독일 노르트하우젠 극장에서의 첫 음악 코치 경험을 시작으로 다수의 오케스트라 및 극장에서 음악 어시스턴트와 코치로 활동했다. 2018년, 독일 음악협회(Deutscher Musikrat) 지휘자 포럼(Forum Dirigieren)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베를린에서 매년 열리는 ‘Das Kritische Orchester’ 결선에 진출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페테르 외트되시, 가브리엘 펠츠, 마르코 레토냐, 코르넬리우스 마이스터, 요르마 파놀라, 크리스티나 포스카, 크리스티안 틸레만, 시몬 영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하며 음악적 견문을 넓혔다.

정찬민은 덴마크 왕립 극장, 독일 도이체 오퍼 암 라인 극장, 하노버 극장, 카를스루에 극장, 바이마르 극장, 카셀 극장, 데사우 극장 등에서 객원 지휘를 맡았으며, 벨기에 플란데런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도 활약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에르푸르트 극장에서 제2카펠마이스터 및 음악감독 보조로 활동하며 지휘자로서의 경험을 쌓았고, 2021년부터는 아헨 극장의 제1카펠마이스터 및 부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2024년, 그는 클래식 부산이 주관하는 부산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 개관 홍보 프로젝트인 “헬로 오페라” 시리즈의 첫 스타트인 ‘마에스트로’를 통해 한국 활동의 시작을 알리며, 한국 관객에게도 첫 무대를 선보였다. 그의 지휘 활동은 유럽 전역의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오페라 및 교향곡 레퍼토리를 기반으로 정교한 해석과 강렬한 음악적 에너지가 어우러지는 유려한 지휘를 통해 독일과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ARTIST PROFILE



바이올린 임동민
Dongmin Lim, Violinist

바이올리니스트 임동민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위, KBS한전음악콩쿠르 대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윤이상특별상을 비롯해 일본 유로 아시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음악춘추, 음악저널, 스트라드 등을 포함한 국내외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했다.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그는 평창대관령음악제 라이징스타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일본 이시카와 뮤직 아카데미에서 IMA음악상을 수상하며 무대에 올랐고,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독주회와 국제아트홀 독주회를 비롯해 KBS교향악단, 부천필, 성남시향, 수원시향, 인천시향,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리아콥오케스트라,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KNUA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 정명훈과 총 4회의 협연을 성료했다.

독주뿐만 아니라 실내악에 대한 각별한 열정으로 이든 콰르텟의 멤버로 앙상블 활동도 이어오고 있는 그는 더하우스콘서트, 평창대관령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현 예술의전당 국제음악제),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 히차커 여름 음악축제(Sommerliche Musiktage Hitzacker) 등 다양한 무대에 함께했으며,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앙상블적인 내공 또한 증명했다.

임동민은 김남윤, 김재영, 김성숙, 고이치로 하라다(Koichiro Harada), 다카시 시미즈(Takashi Shimizu) 사사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후 현재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와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닝 핑(Ning Feng), 올리버 빌레(Oliver Wille)를 사사하고 있다. 임동민은 2024년부터 독일연방음악장학재단(Deutsche Stiftung Musikleben)의 후원으로 1715-1720년 마테오 고프릴러(Matteo Goffriller, Venedig 1715-1720)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2024년 12월 피아니스트 최형록과 함께 KBS 클래식FM 주관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2』 음반을 발매하며, 그의 음악적 깊이와 탁월한 해석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피아노 가주연
Juyoun Ga, Pianist

피아니스트 가주연은 스페인에서 가장 유서 깊고 권위 있는 프리미오 하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024년 우승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독일 트로이스도르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헨레 피아노 콩쿠르 전체 대상, 미국 뉴욕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한국 쇼팽 콩쿠르 전체 1위, 대구방송(TBC) 음악 콩쿠르 특상(경상북도 도지사상), 수리음악콩쿠르 대상, 성정음악콩쿠르 최우수상 및 연주상 등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한-오 수교 130주년 기념 초청 연주를 통해 유럽 무대에 데뷔한 그는, 이후 폴란드와 헝가리 등지에서도 초청 공연을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치 문화원의 공동 초청으로 열린 ‘쇼팽의 밤’ 콘서트를 비롯해, 아마하 초청 ‘라이징 아티스트 콘서트’, 금호문화재단 주최 독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했다. 2023년에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의 외교장관이 참석한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생가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모차르트가 사용했던 피아노를 연주했다.

스페인 우베다 페스티벌, 프랑스 빌다브레성, 독일 마이센 페스티벌, 오페르디케 하우스, 페르디난트 튀르머사(社), 비엔나 모차르트 하우스 등 세계 각지의 유서 깊은 홀과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연주했으며, 2025년에도 독일, 스페인, 한국 등에서 다수의 독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수원시립교향악단,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탈리아 Brescia Master Philharmonic Orchestra, 스페인 말라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KBS 1FM ‘KBS 음악실 - 젊은 음악가들을 주목한다’에 소개되었다.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2024년에는 낙소스(Naxos) 레이블을 통해 슈만, 드뷔시, 쇼팽의 작품을 담은 음반을 녹음했다.

가주연은 예원학교와 연세대학교에 실기 우수로 입학해 한국장학재단의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수혜받았으며, 신민자, 허은주, 유영욱 교수를 사사했다. 이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대학에서 자크 루비에를 사사하며 석사 과정을 만장일치 최고점으로 졸업, 현재 동대학 최고연주자과정에 재학 중이다.

CONCERT GUIDE PROFILE



해설 강석우
Suk Woo Kang, Concert Guide

해설자 강석우는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하던 중 1978년 영화진흥공사 제1회 신인 배우 선발에서 최종 선발되어 영화 <여수>로 데뷔했다. <겨울 나그네>, <잃어버린 너>, <상처> 등 여러 편의 영화와 <보통 사람들>, <학교>, <반올림>, <아줌마>, <웃어라 동해야>, <아버지가 이상해>, <여름아 부탁해> 등 TV 드라마에 출연했다. 그 외 <여성시대>, <클래식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며 백상예술대상 신인상(<보통 사람들>) 평론가협회 남우주연상(<겨울 나그네>), MBC 연기대상 최우수상(<아줌마>), 한국PD대상 최우수상(<여성시대>)을 수상했다. 클래식 애호가로도 유명한 강석우는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강석우의 청춘 클래식』을 출간해 자신의 삶 속 음악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로 클래식 팬들과 소통했다. 가곡 예찬론자인 그는 ‘4월의 숲속’, ‘시간의 정원에서’, ‘내 마음은 왈츠’ 등 가곡도 직접 작곡·작사했다.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에 이르기까지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해설자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ORCHESTRA PROFILE



연주 한경arte필하모닉 HANKYUNG arte Philharmonic

한경arte필하모닉은 2015년 ‘경제와 문화의 가교’를 기치로 한경미디어그룹이 창단해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급 지휘자들과 함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초대 음악감독 금난새에 이어 오스트리아 티롤 주립극장 수석 지휘자를 역임한 홍석원이 2대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현재는 홍콩 출신의 윌슨 응이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한경아르떼필하모닉은 다채롭고도 품격 있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2016년에는 전국 도시를 순회하며 문화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고품격 음악을 선사하는 ‘청소년 문화사랑의 날’ 투어를 개최해 청소년들의 문화 소양 함양에 크게 기여했다.

2018년 세계 최고 실내악단 이무지치와 합동공연을 열어 큰 관심을 모았고, 180인조 시민합창단과 베토벤 교향곡 제9번 제4악장 ‘환희의 송가’를 연주해 시민참여형 공연의 대표적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 2019년 홍석원의 지휘로 공연한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도 음악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교육부,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교과서의 모든 클래식을 연주해 녹음하는 교과서 음악회를 기획해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 바 있다. 또한 공연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베토벤의 ‘에그몬트’ 전곡을 국민배우 이정길과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했다. 2021년에는 국립오페라단과 방방곡곡을 돌며 전국 순회 오페라 공연을 진행했고, 2022년에는 한·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발레음악 <코레아의 신부>를 국내 전국 초연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국을 이끄는 음악가 시리즈’와 ‘더 클래식 시리즈’ 등 창단 이래 70여 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으며, 2023년 현대무용의 거장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가 이끄는 몬테카를로 발레단과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했다. 2024년 3월 홍콩 아츠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윌슨 응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이탈리아 라스칼라 발레단과 <해적>을 러시아의 지휘자 발레리 오브샤니코프와 공연했다. 5월에는 일본의 후쿠야마 국제음악제에도 초청받아 한일 문화 교류에도 이바지했다.

2025년 창단 10주년을 맞은 한경arte필하모닉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공연으로 관객과의 만남을 이어갈 것이다.

PROGRAM NOTE

뒤카	마법사의 제자 (1897)
P. Dukas	L'Apprenti sorcier (1897)

폴 뒤카는 독특한 작곡가였습니다. 한창때 작곡가, 비평가, 파리 음악원 교수로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는 생의 마지막 20년을 남겨두고 돌연 침묵기로 접어들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한 소수의 작품들만 남겨두고 구작들을 파기해 버렸죠. 자신에게 엄격했고 독서와 친구를 소중히 여겼으며 명예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다운 행동이었다고 할까요? 덕분에 그가 남겨놓은 작품은 7개의 주요작과 5개의 소품 등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기 드문 재능을 지녔던 ‘관현악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증거품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마법사의 제자’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발라드 ‘마법사(Der Zauberlehrling, 1797)’에 기초한 이 ‘교향적 스케르초’는 1897년 발표 당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세기 중엽에는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판타지아’에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지요. 곡은 서주와 코다가 붙은 리드미컬하고 묘사적인 메인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뒤카의 장기였던 정치하고 철저한 주제 전개 수법과 색채적 관현악법이 돋보입니다. 뒤카는 특유의 생생하고 절묘한 필치로 다음과 같은 스토리를 생생하게 묘파 해냈죠.

마법사의 제자가 스승이 외출한 틈을 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봅니다. 빗자루에 주문을 걸어 양동이에 물을 길어오게 하는 거죠. 큰 물통에 점점 물이 차올라 넘칠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아차, 마법을 푸는 주문을 잊고 말았지 뭐니까. 갖은 방법을 써보지만 모두 헛일! 당황한 제자는 도끼를 휘둘러 빗자루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한 순간, 쪼개진 빗자루 조각들이 제각기 일어나 물을 더욱 빨리, 많이 길어오는 게 아닌가요. 현관도, 계단도,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고, 제자는 ‘사람 살려!’ 비명을 지릅니다. 결국 스승이 돌아와 사태를 해결하고, 제자는 머쓱한 웃음을 짓네요.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D장조 Op.19 (1915-17)
S. Prokofiev	Violin Concerto No.1 in D Major, Op.19 (1915-17)

젊은 시절 프로코피예프는 ‘양팡 테리블(Enfant terrible, 특정 분야에서 경이로운 수준의 두각을 보이는 신인)’로 각광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음악원 시절에 발표한 피아노 협주곡 제1번과 제2번은 급진적 성향과 파격적 스타일로 일대 파란을 일으켰지요. 그의 작품들은 ‘날카롭고 격렬한 타격, 잔인한 불협화음의 연속’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비쳤습니다. 그런 그의 음악을 보수적인 청중과 비평가들은 기득권에 대한 반향으로 간주하며 불편하게 여겼지요. 하지만 마냥 자극적이고 과시적이기만 할 것 같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전혀 다른 자아도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 지점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의 얼굴은 더없이 섬세하고 유려하게 발산되는 서정주의자의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이 아주 잘 드러난 사례가 바로 첫 번째 바이올린 협주곡이지요.

이 D장조 협주곡은 프로코피예프의 나이 20대 중반이었던 1917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해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지만 그는 역사적 격변에 동참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려 했죠. 그해 여름에 그는 페트로그라드의 혼란을 피해 교외의 마을을 거쳐 카프카스 지방의 휴양지에 머물렀고, 그 평화로운 환경에서 이 협주곡과 신고전주의풍의 ‘교전 교향곡’ 등을 완성했습니다. 두 곡은 공히 급진성이나 과격함과는 거리가 먼 작품들이죠. 물론 그 특유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기법은 살아 있지만, 그의 작품들 중에서는 상당히 온건하고 부드러운 부류에 속합니다.

이 협주곡의 가장 큰 특징은 독특한 구성입니다. 고전적인 협주곡의 그것을 뒤집어놓은 듯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바깥 두 악장은 비교적 느린 템포에 서정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사이에 활력 넘치고 그로테스크한 스케르초 악장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깥 악장들은 중간에 템포가 빨라졌다가 원래의 템포로 돌아가는 유동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편, 첫 악장은 프로코피예프의 초기작 중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주제선율로 출발하는데, 이 선율은 작곡가가 1915년 니나 메르스카야와 연애했 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선율에서 우러나는 유려하고 감미로운 시정이야말로 작품 기저의 정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곡은 프로코피예프 특유의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오묘한 개성을 두루 아우르고 있습니다.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 M.83 (1929-31)
M. Ravel	Piano Concerto in G Major, M.83 (1929-31)

피아노 연주에 능했고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라벨은 빼어난 피아노 음악 작곡가인 동시에 정교한 관현악 기법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라벨이 피아노와 관현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피아노 협주곡을 발표한 시기가 그의 경력에서 거의 끄트머리였다는 사실은 좀 의외이고 아쉽기도 하지요. 그는 피아노 협주곡을 두 곡 남겼는데, 1929년에서 1931년 사이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작곡된 (양손을 위한) ‘G장조 협주곡’과 (왼손을 위한) ‘D장조 협주곡’입니다. 두 곡 모두가 훌륭한 명곡이지만, 라벨 특유의 신고전주의 성향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 쪽은 이 G장조 협주곡이지요.

라벨은 사실 1906년에 ‘바스크 주제’에 의한 피아노 협주곡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같은 아이디어에 매달린 적이 있죠. 부득이 중단되거나 무산되었던 그 시도가 이 G장조 협주곡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민요풍인 첫 악장의 첫 번째 주제는 바스크 지방의 축제 분위기와 시골악사의 연주를 연상시키죠. 피레네 산맥 서부,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걸쳐 있는 바스크 지방은 그의 모친의 출신지이자 그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곡에는 재즈의 영향도 나타나는데, 모든 악장에서 재즈풍의 리듬과 화성을 만날 수 있죠. 이 곡을 쓰기 얼마 전인 1928년에 라벨은 북미 순회공연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접한 수준 높은 재즈 연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라벨은 이 곡을 “모차르트와 생상스의 정신에 입각하여 작곡한, 가장 엄밀한 의미의 협주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협주곡은 유쾌하고 화려해야 하며, 심각하거나 극적인 효과를 겨냥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는데요, 이 협주곡은 그런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깥 악장들은 극도로 활달하고 유쾌하여 서커스나 카니발을 연상시키는데, 짧은 마지막 악장에서는 그와 절친했던 스트라빈스키(페트루슈카)나 사티(파라드)의 영향도 엿보이죠. 반면에 중간에 느린 악장은 낭만적 운치로 가득한 이상곡풍의 음악으로 라벨 고유의 투명한 서정미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브리지	바다 H.100 (1910-11)
F. Bridge	The Sea Suite, H.100 (1910-11)

프랭크 브리지는 라벨과 비슷한 연배였던 영국의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입니다. 오늘날에는 ‘벤저민 브리튼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육보다는 작곡과 연주에 주력했던 음악가죠. 관현악 모음곡 ‘바다’는 그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은 1912년 9월 24일 런던의 퀸즈홀에서 열린 프롬나드 콘서트에서 헨리 우드 경의 지휘로 초연되었는데, 연주가 끝난 후 작곡가는 세 번이나 무대로 불러 나가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고, 다음날 신문에는 “음악은 묘사적이고 선율이 풍부하며, 그 조합에서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자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평론이 실렸지요.

작품은 4곡으로 구성되는데 각 곡에는 제목이 붙어 있고, 초연 당시 작곡가가 프로그램 노트에 기고한 설명도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1곡 ‘바다 풍경’은 여름 아침의 바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 위로 햇살 아래 드넓게 펼쳐진 바다가 보이고 따뜻한 바람이 수면 위로 스며들죠. 그 모습은 E장조의 긴 화음으로부터 부드럽고 관능적으로 피어나, 차츰 다성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 보이면서도 투명감을 잃지 않는 채로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제2곡 ‘바다 거품’은 해안의 낮은 바위와 웅덩이 사이에서 바닷물이 거품을 일으키는 모습을 그려 보입니다. 스케르초 악장에 해당하며 생동감 넘치고 아기자기한 흐름 속에서 주제들이 대위법적으로 어우러지죠. 제3곡 ‘달빛’은 고요한 밤바다를 그립니다. 첫 달빛은 어두운 구름을 뚫고 나오려 애쓰고, 그 구름이 밀려나면 바다는 보름달빛을 받아 반짝이게 되죠. 애수와 열정이 교차하는 오묘한 매력의 느린 악장입니다. 제4곡 ‘폭풍’은 맹렬한 폭풍우에 거칠어진 바다의 모습을 부각합니다. 그러다 후반부로 넘어가면 폭풍우는 가라앉고 첫 곡에 대한 암시가 들려오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다를 사랑하는 이가 바다에 바치는 헌사’를 의미합니다.

예술의전당 X 서울시립교향악단

MIN GYU SONG & SUEYE PARK **ON FIRE**

지휘
송민규

바이올린
박수예

2025. 7. 17 THU 7:30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입장권 R 7만원 S 5만원 A 3만원 B 1만원

문의 및 예매 1668-1352 www.sac.or.kr

주최 예술의전당

NEXT CONCERT

2025. 8. 14. THU. 11 A.M.

지휘 정나라 | 협연 김현준(바순) | 룩스트리오

연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해설 강석우

1부

로시니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바순 협주곡

바순 김현준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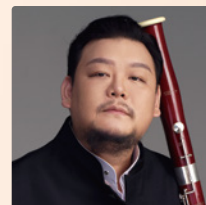
베토벤
브람스

3중 협주곡 C장조 Op.56 제1악장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569

룩스트리오



지휘 정나라



바순 김현준



룩스트리오



해설 강석우

* 프로그램 및 출연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11시 콘서트 일정

9월 11일, 10월 16일, 11월 13일, 12월 11일

공연예술본부장 서고우니

음악기획부장 김재연 기획·제작 최효정

진행 정재린 박은정 김동욱 양지연 이빛나리 박정혜

공연장운영부장 양우제 대관 권세정 송병하

매표 강다혜 반민경 채수안 하우스매니저 신호철

무대운영부장 윤대성 무대감독 권규완

조명 김명식 음향 조희명 한혜림

홍보협력부장 김신년

홍보 이정아 이재현 이민진 회원 양성필 정윤정

편집디자인 2X2 홍보물인쇄 에드코아 장치장식물 서울21

사진 이우성

예술의전당



공연 종료 후 설문조사 완료 화면을 103번 문 앞 프로그램북 판매 데스크에서
인증해주시면 모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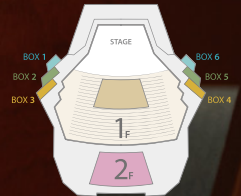
콘서트홀 객석기부

CONCERT HALL NAMING DONATION

콘서트홀을 더욱 풍성하게, 더욱 아름답게

기부금액

1층 좌석당	500 만원	
2층 좌석당	300 만원	
BOX 1 / BOX 6	각 6,000 만원	
BOX 2 / BOX 5	각 8,000 만원	
BOX 3 / BOX 4	각 1 억원	



콘서트홀 객석기부자 명단

2025년 7월 기준 / 명단은 가나다 순이며,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 기부자는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후원회원 기부자

40석	권오춘
28석	익명 후원회원
14석	유중근
9석	정문기
8석	구자관
7석	김영호 김지은
6석	(주)밀레 박선주
5석	강화철 권가찬
4석	김철주 문채수 박성희 박영주 박혜성 배동진 서병기
3석	천석규
2석	(주)경남 김일근 김재정 김재학 (주)대일건설 박용현 박인철 (주)삼구아인앤씨 서인수 신영애 신필열 양동훈 예스24(주) 예주희 윤의희 이상완 이세웅 이창주 정승일 주원석
1석	김갑유 김명숙 김병윤 김상래 김명수 김영진 김용원 김정실 김철중 김태우 나천수 문누미 민홍식 박한용 서민석 석세일 신규철 양수화 윤홍근 이영수 조인경 최광춘

일반회원 기부자

6석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5석	(주)에이티엔인베스트먼트
4석	조재혁
2석	(주)상성토탈 장목상 최지영 최창화 한기성 (주)마리인터내셔널
1석	강충모 고영열 고우림 김경숙 김규연 김대진 김동만 김동순 김동욱 김민석 김바울 김상수 김선욱 김순희 김원길 김을 김주환 김지은 김현리 김희근 (주)루시드프로모커뮤니케이션즈 모철민 (주)문화방송 박기훈 박용만 박은주 배강업 (주)세아홀딩스 손열을 손태진 송관률 (주)신세계 신수정 신정택 양성원 오재원 유소연 유채훈앤 윤동진 이경숙 이세창 이소영 이정수 이혜선 이효진 장덕호 정민성 정연희 정철희 정혜진 조미열 조성호 조용경 존노랜 진양혜 최민규 최성훈 최은학 (주)크레디아 한상일 함병철 함신익과 심포니 송 허승연 Forte Di Quattro(TJ) Forte Di Quattro(HS) 조민규-전략기획실